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입단식...안산 합류

광주여대 출신 최미선·김민서·박나운도 한솔밥

창단식 내일 光銀 창립54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5일 본점에서 여자 실업 양궁단 입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양궁단은 지난 7월 광주여대 출신의 기보배·최미선·안산 선수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김성은 감독을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감독 및 창단 실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는 등 선수 선발 및 창단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김성은 감독을 필두로 안산·최미선·김민서·박나운 선수 영입을 확정해 이날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입단식을 진행했으며, 안산 선수는 내년 말 졸업과 동시에 합류할 예정이다.

안산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지난해 7월에 열린 '2020도쿄올림픽'에서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에 이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관왕,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2022 양궁월드

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최근 콜롬비아 매데인에서 열린 '2022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최미선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 중에 있으며, '2022 양궁월드컵'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 '2019 유니버시아드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19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김민서·박나운 선수는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날 입단식에 이어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팀명을 선포하는 창단식은 오는 18일, 광주은행 창립 54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여자 양궁단 창단은 광주를 세계 최고의 양궁 메카로 더욱 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5일 본점에서 여자 실업 양궁단 입단식을 개최했다.

고히 자리매김하고 우리 고장 출신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타지역에 유출하지 않고 우

리 지역에서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KBO, 양의지·박동원 등 내년 FA 승인 선수 공시

KBO(총재 허규연)는 16일 2023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40명 중 FA 승인 선수 21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3년 FA 승인 선수는 이태양, 오태곤(이상 SSG), 정찬원, 한현희(이상 키움), 김진성, 유강남, 채은성(이상 LG), 신봉기(KT), 박동원(KIA), 이재학, 원종현, 노진혁,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양의지(이상 NC), 오선진, 김상수(이상 삼성), 강윤구(롯데), 박세혁(두산), 장시환(한화) 등 총 21명이다.

한편, 이날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뉴스

韓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권 밖으로...5년8개월 만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 고진영 4위
2017년 3월 이후 5년8개월 만에 전무
한국 LPGA 15개 대회 연속 우승 못해

한국 선수들이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5년 8개월 만에 3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5일 발표된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 따르면 1위는 넬리 코다(미국), 2위는 아타야 티피폰(태국), 3위는 리디아 고(뉴질랜드)다.

이달 초 세계 1위에서 내려온 고진영은 이번 4위로 밀려났다.

한국 선수들이 세계 3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은 2017년 3월 이후 5년8개월 만이다. 2017년

3월13일 전인자가 4위였고 이후부터는 유소연, 박성현, 박인비, 고진영 등이 꾸준히 3위 안에 들었다.

순위가 떨어진 것은 한국 선수들이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승을 합작한 한국 선수들은 지난 6월 전인자가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이후 15개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이렇게 오래 우

승하지 못한 것은 8년 만이다. 당시 한국 선수들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7개 대회에서 무관에 그쳤다.

오는 17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올해 LPGA 투어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들이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9년 김세영이 우승한 데 이어 2020년과 지난해까지 고진영이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뉴스

세계랭킹 1위 내준 고진영 "최종전 후회없는 경기 하겠다"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3연패 정조준

고진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700만 달러)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은 오는 17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프트GC에서 개최된다.

고진영은 디펜딩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해 대회 3연패를 노린다.

고진영은 시즌 최종전에서 절치부심하고 있다. 고진영은 시즌 초반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한 후 줄곧 정상에 지켰지만, 최근 부진을 거듭하면서 세계랭킹 4위로 미끄러졌다.

고진영은 올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14경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최근 4경기에서는 3차례 컷 탈락, 한 차례 기권으로 체면을 구겼다.

고진영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종전 무대에 오른다. 고진영은 "작년과 재작년에 네이플스에서 우승했던 것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우승하기 어려웠었던 컨디션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즌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후회없이 경기를 하고 싶다. 경기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올 한해도 후회없이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코스에 대해 "코스 상태 등이 작년, 재작년과

너무 비슷했다. 다만 지난주에도 그랬고, 몇 달 전에도 허리케인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승상금 200만 달러를 받으면 저축하겠다고 웃었다. 고진영은 "우승상금이 올 시즌 대회 중에 제일 큰 대회인데,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 좋은 것 같다. 다른 대회도 상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우승상금을 받게 된다면, 하고 싶은 건 워낙 많지만, 저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진영과 함께 김세영(29), 김아림(27), 김효주(27), 안나린(26), 양희영(33), 이정은(26), 전인지(28), 지은희(36), 최은정(32), 최해진(23)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 사냥에 나선다.

한국 선수들은 최근 15개 대회 연속 무승에



그쳤다. 이는 2014년 17개 대회 연속 무승 이후 8년만의 최약 기록이다. 뉴스



인삼공사 엘리자벳.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V-리그 최고 외국인선수 엘리자벳, 득점왕 예약

탄력·긴팔 이용 타점 높은 공격력 발군

KGC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엘리자벳(23)이 득점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엘리자벳은 지난 1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경기에서 3-0(25-17 25-20 25-20)으로 완승을 견인했다.

시즌 3승 3패를 기록한 인삼공사(승점 8)는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엘리자벳은 블로킹득점 2개, 서브에이스 1개를 포함해 26점을 올려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지난 11일 현대건설전에서 무려 56점을 쓸 어담았던 엘리자벳은 이날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전한 화력을 자랑했다. 레프트 이소영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고희진 감독은 지난 4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엘리자벳을 새 외국인 선수로 낙점했다. 지난 시즌 페퍼저축은행에서 한국 배구를 경험한 점과 엘리자벳의 기량 이명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경기에 대한 집중력, 팀에 융화되는 진화력도 엘리자벳을 선택한 배경이었다.

엘리자벳은 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엘리자벳의 탄력과 긴 팔을 이용한 높은 타점도 상대 블로킹 위에서 때리는 스파이크가 일품이다. 하이볼 처리 능력도 좋아 인삼공사의 제1 공격 옵션으로 활약하고 있다. 풀 시즌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은 편이다.

특히, 고비처마다 순도 높은 득점력을 과시하며 팀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1라운드 6경기에서 출전한 엘리자벳은 193점을 기록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엘리자벳과 득점 2위 아스민(현대건설·133점)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한 시즌 1000득점 돌파와 함께 득점왕이 유력해 보인다.

'벤투호 상대' H조 우루과이 가나·포르투갈 준비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마스크 후환'을 예고한 손흥민(토트넘)이 마지막으로 합류하며 완전체를 이룬 벤투호가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타르 입성 이후 처음으로 오전에 이뤄지는 훈련이다.

H조 4개국 중 가장 먼저 카타르에 입성한 한국과 달리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우선 한국의 첫 상대 우루과이는 카타르에 입성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에서 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아이슬란드전을 끝으로 평가전 일정을 마친 벤투호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이전 평가전 일정을 없다.

UAE는 지리적으로 카타르와 가깝고, 기후, 환경 등이 유사해 적응 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우루과이는 최대한 조지력을 끌어올리고, 19일 카타르에 입성할 계획이다.

가나 역시 UAE의 아부다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14일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아틀레틱 빌바오), 수비수 타리크 램프티(브라이튼) 등 귀화 선수들이 일부 포함된 최종 명단을 발표한 가나는 17일 스위스를 상대로 최종 평가전을 갖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포르투갈은 자국 리스본에서 훈련 중이다.

18일 나이지리아와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다. 아프리카 가나를 대비한 평가전으로 보인다.

호날두·메시·벤제마·노이어 등 마지막 월드컵 될 '톱10'

영국 BBC 전망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와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가 자신들의 마지막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1일(한국시간) 막을 올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이 둘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란히 5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 앞서 둘은 이번 대회가 자신들의 월드컵 커리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4년 뒤, 호날두는 41살, 메시는 39살이다.

영국 BBC는 16일 호날두와 메시처럼 카타르월드컵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톱클래스 선수 10명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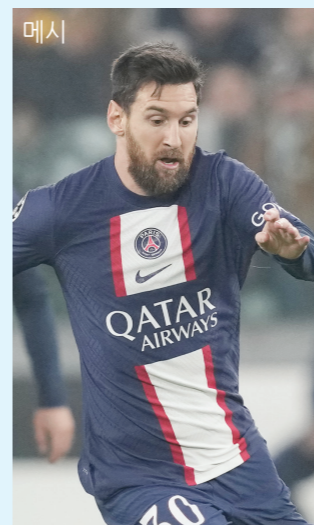
당연히 호날두와 메시가 포함됐다. 2006 독일월드컵을 시작으로 2010 남아공월드컵, 2014 브라질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모두 출전한 호날두는 A매치 191경기에 출전해 117골을 터뜨렸다. 역대 통산 A매치 최다골 기록 보유자다.

5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메시는 디에고 마라도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이상 4회)를 넘어 아르헨티나 사상 월드컵 최다 출전 선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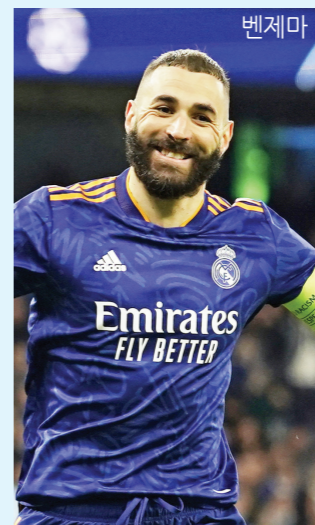
메시는 19살이던 2006 독일월드컵을 통



호날두



메시



벤제마

해 세계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월드컵 통산 19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올렸다.

아르헨티나의 최고 성적은 브라질월드컵에서 기록한 준우승이다. 이 대회에서 메시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둘 다 대륙별 국가대항전에서 정상을 맛봤지만 월드컵과는 우승 인연이 없었다.

BBC는 둘 외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폴란드), 네이마르(30·브라질), 루이스 수아레스(35·우루과이), 루카 모드리치(37·크로아티아), 카림 벤제마(35·프랑스), 가레

스 베일(33·웨일스), 마누엘 노이어(36·독일), 세르히오 부스케츠(34·스페인)도 카타르를 끝으로 월드컵에서 퇴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992년생으로 서른 살인 네이마르의 이름이 눈에 띈다.

BBC는 과거 네이마르가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10명 중 가장 어린 선수"라고 설명했다. 네이마르는 이후 해당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